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경영학과	이름	김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Pennsylvania
파견대학	Shippensburg University	파견기간	23-1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Shippensburg University는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학교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1시간 정도 더 들어가야하고, 밤에는 우버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고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의 학생들이 많고, 학교가 지어진지 200년이 넘는 학교라 건물들이 크고 단과대학들이 기숙사에서 걸어가기엔 살짝 먼 거리라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를 하다가 모르겠으면 멘토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learning center와 헬스장 및 수영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은 2층으로 되어있고, 1층은 배드민턴, 농구장, 헬스기구들이 있고, 요가 및 스피닝을 할 수 있는 실내 강의실이 있습니다. 2층은 트랙과 탁구대 및 1층보다는 넓은 헬스장이 있어 겨울에 춥거나 더울 때 이용하기 좋습니다. 헬스장 옆에는 운동장트랙 및 잔디밭이 있어 런닝을 하거나 운동경기 등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p>
2023-1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수강번호의 앞자리가 낮을수록 쉬운수업입니다. 저는 앞자리가 4인 수업을 한달동안 듣다가 스피킹이 대부분이여서 중간에 바꿀 수 있는 수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Mary가 생물학 교수님이 수업듣는 것을 허락해주셔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어려우시거나 힘들면 꾸역꾸역듣지 말고 정정기간에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려요.</p> <p>Introduction to academic writing (추천) -Dr. Cella 교수님 수업을 추천드려요.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때 글쓰기가 두번있고, 매주 한 두개씩 글을 써서 제출하는 게 과제입니다. 일단 영작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추천드립니다. 글을 어떻게 쓰는지 여러</p>

사이트 및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처음엔 시 같은 짧은 영작을 시키시고, 다음엔 각자 원하는 주제를 말해보고 자기가 선호하는 주제를 골라서 글을 쓰는 수업입니다. 어떤 날은 수업대신 writing center에서 첨삭을 받고 교수님에게 첨삭을 받는 것으로 대체되고, 날씨가 안좋은 날은 하루 쉬기도 합니다. 기본 교양수업정도라 딱히 수업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Consumer behavior

-한국인 교수님이 수업해주십니다. 처음엔 리스닝이 잘 안되서 녹음을 해서 들을까 하다가 계속듣다보니 교수님의 발음이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시험은 중간, 기말이 있고, 시험범위는 5개정도의 챕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 파견된거라 온라인수업이 2주에 한 번 정도 있고, 수업듣고 문제를 풀거나 어떤 주에는 논문을 주시고 논문에 관한 문제를 내시거나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적어 과제로 내면 됩니다. 수업시작 전에는 출석으로 문제를 내시고 수업 후에도 배운 것에 대한 문제를 내십니다. 기말에는 팀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수업내용이 아니라 마케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Human biology

-인간의 주요 장기들이나 뼈 그리고 화학작용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수업중에는 종이 앞뒤 한장으로 피피티에 대한 내용을 적고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10문제씩 내십니다. 교수님이 후하셔서 한문제 정도는 알려주십니다. 과제로 과학적 연구나 인터뷰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2-3페이지 적고, 다른 친구들이 쓴 것을 읽고 피드백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한 주제를 정해서 피피티로 자기가 아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교수님이 친절하셔서 중간중간 질문도 하시고 재밌게 가르쳐주셔서 이 수업도 듣는 거 추천드려요.

Human management resource

인사관리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조직의 평가프로세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는가 등 조직 내의 인사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배우고, 중간 및 기말 객관식 시험입니다. 시험공부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교수님 office hour시간에 가서 물어보거나 따로 메일로 물어보면 됩니다. 수업은 sage라는 사이트에서 진행되서 강의계획서 보고 해당 챕터에 대해 미리 읽어오시거나 피피티를 올려주시는 데 수업전에 읽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주에 한 두번 학생들 끼리 토의하고 발표하고 교수님과 이야기하는 상황이 많으니 미리 할 말을 생각해보시거나 정말 스피킹연습을 많이 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Learning center와 Writing center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러닝센터에서는 강의 계획서가 이해가 잘 안되거나 과제를 하면서 어려웠을 때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Writing center에서는 글쓰기 수업을 듣고 있었어서 제가 쓴 문장의 흐름이나 문법이 맞지 않을 때, 고쳐줍니다. 저 두 센터를 가기전에 무조건 되는 시간에 예약을 하고 가야합니다.</p> <p>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인 APB라</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 저는 봄학기에 파견을 나가서 1~3월 내내 정말 추웠고, 맑은 날은 엄청 하늘도 맑고 보통 어둡고 침침한 느낌의 날씨라고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너무 추워서 전기장판이나 전기요가 필수입니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옷을 두껍게 입고 다녔습니다. 2월쯤에는 눈이 한번 왔었고, 4월부터는 슬슬 날씨가 따뜻해져서 후드티나 반바지를 입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비나 흐린날이 대부분이라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저는 흐리다가 맑은 날씨인 동부쪽으로 오지 않을거라 생각이 들어 이런 부분은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부보다는 남부쪽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 동부지역인 펜실베이니아는 대체로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shippensburg는 아주 작은 소도시라서 차가 있거나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 위험하지 않고, 밤에도 기숙사 주변만 혼자 걸어다니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마약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것만 잘 주의해서 다니면 딱히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숙소</p>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 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Lackhove hall을 이용했습니다. 기숙사별로 타입이 a, b, c, d, e, f타입이 있는데 저는 각자방이 필요했고, 룸메가 3명이고, 거실이 있는 F타입을 선택했습니다. 타입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신입생은 무조건 1년을 기숙사에 살아야합니다. 이것도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개인방에는 싱글침대하나 서랍형 수납장 두개, 그리고 책상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방안에 또 다른 작은 문을 열면 옷장이 있어 거기에 짐을 놓으면 됩니다. 또한 침대 밑에도 공간이 많이 있어 공간이 작을 것 같은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p> <p>또한 기숙사 안에 냉장고를 따로 가져올 수 있어 제 기숙사에는 거실에 냉장고를 2개 놓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 방에다가 놓을 수도 있습니다. TV는 따로 없으므로 친구들이 가져오거나 서로 돌려가면서 빌리기도 합니다.</p> <p>룸메이트를 신청하거나 자기성향에 맞는 룸메이트끼리 매칭이 가능해서 룸메이트 신청기간에 자기가 선호하는 사항들을 적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아서 제 룸메들과 많은 마찰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잘 해결되어서 어쨌든, 기숙사들어오시면, 룸메이트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p>1층에는 kitchen홀이 있어서 lackhove에 사는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및 공용 식기가 있으나 다들 각자 자기것을 챙겨오므로 음식만 냉장고에 넣고 식기도구를 준비하면 좋습니다.</p> <p>마지막으로 기숙사안에 비상용 알람이 울리는데, 연기를 인식해서 나는 소리이므로 밤에 잘 때 울리면 잠을 자기 힘들었습니다.. 이런거 생각하면 자취를 하거나 다른 기숙사를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사</p>	<p>학교 Meal Plan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교식당 개별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접 요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제일 싼 175 block plan을 이용했습니다. 가격은 \$1,733달러입니다. 한학기에 175번을 다이닝홀에 들를 수 있고 \$250 Flex도 같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것도 reisner(다이닝) 홀 말고 학교안에 식당이나 다이닝홀에서 음식을 사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3번이 최대이고, 이 가격도 비싸서 다이닝 홀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kitchen hall에서 요리를 하거나 Wall mart에서 장을 봅니다.</p> <p>Reisner hall에는 피자, 햄버거, 샐러드바, 베이글, 디저트, 다른 음식들이</p>

	<p>많고 넘쳐납니다. 저는 초반에 피자랑 햄버거를 많이 먹었는데 살도 찌고 음식이 짜고 더부룩해서 나중엔 한식을 많이 요리해 먹었습니다. 다이닝홀에는 가끔 마파두부 같은 아시아 음식도 나오고, 특별한 날에는 셰프님을 데리고 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먹을 시간이 없어서 5달러 내고 도시락통을 사서 다이닝홀에서 먹고 싶지 않는 날에는 음식만 통에 넣어와서 기숙사에 먹기도 했습니다.</p> <p>외부식당은 Rice N Pho라는 쌀국수 집이랑 좀 더 멀리는 일식집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학교안에 식당은 라멘집, 서브웨이, 카레 등을 팔아서 지루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먹었습니다. 라멘집에서는 포케를 자주 시켜먹었는데, 미국에서 먹은 것 중 제일 건강한 음식이었습니다.</p> <p>어쨌든, meal plan은 신청 안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오기전에 요리를 연습해오시거나, 한식 인스턴트를 챙겨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기숙사에 살아서 제가 수업듣는 건물과는 5분거리에 있어 걸어다니거나 밖에 나가고 싶을때는 미리 우버나 리프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새벽시간으로 리프트 예약을 했는데 기사님이 예약시간에 취소를 하셔서 항공권을 날려먹었습니다. 아무튼, 친구에게 부탁하거나 차를 빌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봄방학때는 가까운 공항을 갈 때 우버를 부르고 10만원이상 나옵니다. 학교 이벤트로 워싱턴이나 뉴욕을 당일치기로 가는데 가기 전날 학생회에 신청하고 다음날 관광버스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240만원
Fees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p> <p>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4000달러</p>	
보험료	삼성화재보험 약 20만원	
숙소	4725달러	
식비	2000달러	

교통비	100달러	
책값	10달러	
기타1		
기타2		
합계	9235달러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파견 전에 핸드폰 개통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짜고, 파견전에 기숙사 친구들과 미리 친해져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날씨가 어떤지, 그리고 약도 가능한 한 많이 챙겨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파서 감가약을 한통 거의 다먹었습니다. 자기방을 꾸밀 수 있으므로 인테리어 소품이나 블루투스 스피커 등 넉넉히 가져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날씨가 좋을 땐 해먹을 설치할 수 있어서 아마존에서 시키거나 월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가져와야하는 것을 몰랐어서 1년 파견이시라면 중고나 싸게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봄방학 2주나 있으므로 파견 전 미리 여행계획을 짜오시고 여행관련(숙박, 항공권 등)해서 미리 문제 생기지 않게 준비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교환학생 가기전에는 정말 모든 것이 재밌을 것 같고, 친구들이랑도 놀고, 제가 좋아하는 영어공부도 매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신났었습니다. 하지만, 날씨와 룸메들과의 짜잘한 충돌들이 많이 있어 잠을 충분히 못자서 점점 예민해져있어 학업생활도 엉망이었습니다. 룸메들 중에 한 친구는 마약을 하고 있었고 다른 친구는 자기 방에서 노래를 너무 크게 틀어놓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얼른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많이 버텼습니다. 제 성향상 막 다가가서 말도 성격인데 이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있어 친구들을 사귀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Mary라는 교환학생 담당자분께 자주 찾아가서 기숙사를 바꿀지, 수업을 바꿀지 같이 결정하고, 고민해신 덕분에 잘 학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친구를 소개시켜 주셔서 저도 친구를 사귀고, 그친구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많이 심심하지 않게 도와줘서 힘들어도 혼자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기숙사가 하필 룸메 친구들이 많이 들락날락하고 술도 많이 먹는 자리가 되어서 다음날 제 학업에도 영향을 미쳐 친구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많이 여러 번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만 더 준비해서 갔었더라면 학업스트레스도 적당히 받아가며 룸메들과 사이가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한 FRAT이라는 파티가 있는데 학생회에서 돈을 모아서 만든 파티입니다. 그런데 한 번 가보고 별로였어서 안갔습니다. 더럽고 사람많은데 가는 거 안좋아하신다면 안가는걸 추천합니다. 저는 노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말을 못해서 정말 영어공부 제대로 해가시길 바라요. 하지만, 저는 독서하는 것을 좋아해서 책도 많이 읽고 도서관에서나 학교 잔디밭의자에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시기가 한편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힘들어서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저 혼자 이룰 수 없고, 주변사람들의 도움이 모여 교환학생생활을 잘 마친 것이기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아직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영어소설책도 읽고, 영어통번역에 관심을 가져서 번역쪽으로 갈까 생각중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 이미 서로 친구들을 다사귀 후 봄학기에 파견된거라서 친구들을 사귀긴 힘들었지만, 마음 맞는 친구가 있다면 생활엔 문제없다 생각합니다.

힘들 수 있겠지만 참지말고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으니까 꼭 교환학생 가는 거 추천드려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alsrnd12@naver.com 으로 메일보내세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학교 도서관</p>	<p>학교 잔디밭</p>
	
<p>기숙사 친구들이랑 첫날!</p>	<p>룸메랑 CUB에서!</p>
	
<p>기숙사 문</p>	<p>학교 경기장</p>